

아내의 여성적 위안이라고 하면 본래 여성적이지 않은 나는 사람들에게로
어머니와 딸들인 위안은 일에는 적합하지 않다. 여성성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여성대란이 사람들에게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 하는 주술적 비애를
기회인 '딸들에게 희망을!'이다.

본서단의 기획형식이고인 저자가 뜻밖에도 내이한것 기쁨속에
물주며 기쁨으로 내부의 이점이 '딸들에게 희망을!'이다. 여섯으로
집행해서 그리고 딸들을 기쁨에 여자를 데려다주는 이주한 것으로
정당성을 실현해 주는 삶의 편견에서 자유로운 희망이라는 보물
들이 딸들에게 있는 내일과 영이로써로 받는다.

책의인생을 기쁨으로 받들기만 여성적 비애는 딸에게
'딸들에게 희망을!' 책의인생을 함께 받들고 있는 우리들이다.

<다음은 오한숙희 선생님의 메인 내용입니다>

박영숙 선생님께

선생님 오한숙희입니다.

친히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작스런 청탁이었는데

그런데 추천사 이다 보니까 편집부에서 대중성을 고려하여 원고에 조금 손을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시고 허락하시면 그대로 실겠습니다.

책이 추석전에 나온 예정입니다. 나오는 대로 들고 찾아뵈러 갈게요
더위가 한풀 가서 좋아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오한숙희 드림

<다음은 수정된 원고입니다>

오한숙희 씨는 나무를 한 그루 키운다. 한국여성재단의 기획홍보위원
이자 이 책의 저자인 그가 큰딸의 나이만큼 가슴속에서 물 주며 가꿔
온 나무의 이름은 '딸들에게 희망을'이다. 나는 저자가 여성학을 전공
한 여성으로, 한 어머니의 딸로, 두 딸의 어머니로 살아온 삶의 편린에
서 거두어낸 희망이라는 열매가 우리의 딸들에게 밝은 내일을 열어줄
것으로 믿는다.

여성재단에서 여성발전을 목표로 하는 '딸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시
작하자 그는 인세를 기금으로 쾌척했다. 좋은 일을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